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7강 기원정사에 대하여

<금강경>이 설해진 장소는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다. 붓다가 오며 머물며 법을 퍼던 기원정사(祇園精舍)는 그 정원에 세워졌다. 그것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예사롭지 않는데, 오늘은 그 인연설화를 소개하기로 한다.

숲을 금하듯 덮으려던 수닷타 장자 경전에는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 되어있다. '제타(Uda 祇陀) 왕자의 숲(樹), 고독한 자들(孤獨)을 구원하는(給) 독지가의 정원(園)'이라는 뜻이다. 이를 줄여서 기원(祇園)이라고 했고, 여기 수도처를 세웠기에 기원정사(祇園精舍)라 불린다. <울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아나타핀디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독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독지가'라는 뜻에서 한어로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로 번역된다. 그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배풀고 도움을 주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여기 孤獨은 청년의 아련한 감상이나 실존적 고민이 아니라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주변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즉 현대어로 사회

적 약자들을 가리킨다. 그 자선가, 사회사업자의 원래 이름은 수닷타(須達)였다. 어느날 사업자 은행가인 처남을 찾아 왕상성 라자가하를 방문했다. 그런데, 조용해야 할 집안이 그날따라 부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무슨 결혼식이나, 보현식, 혹은 왕의 군대가 방문하는 줄 알았는데, 처남의 말이 '내일 붓다께서 무리를 이끌고 오시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수닷타는 "지금 붓다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처남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수닷타는 세 번을 꼭 같이 물어보았고, 은행가 처남은 그대로 대답했다. "붓다는 이 세상에 오시기 힘든 본인데... 그 분을 볼 땐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일찍 오신답니다."

수닷타는 붓다를 만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눈을 뜨고 보면 아직 한밤중이었다. 그러기를 세 번, "이제는 날이 샀겠지"하며 대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건 집안이 너무 환해서였다. 문밖은 아직도 캄캄했다. 두려워 발걸음을 머뭇거리자 아차 시바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

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장자여. 내딛는 것이 좋다. 물러서지 마라." 그러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으며, 수닷타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다.

나는 늘 편안하다, 수닷타여. 다음날 아침, 수닷타가 다가오자 붓다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어서 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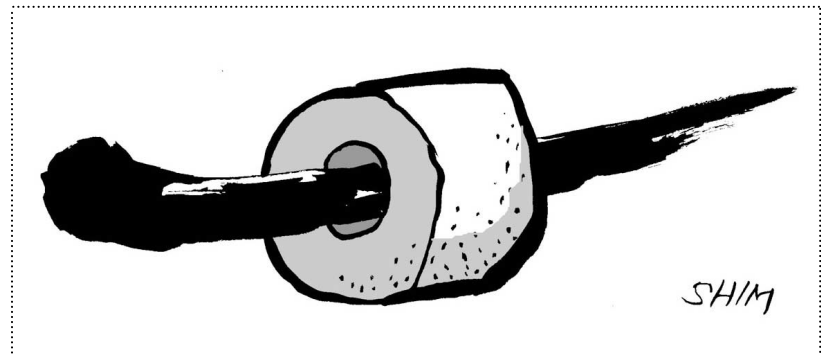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인도해 주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주시는 분이시여. 저희 집에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초대하고 싶습니다." 붓다는 침묵으로써 응낙을 보였다. 수닷타는 라자가하(王舍城)에서 일을 마치고 스라스와티(舍衛城)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붓다가 나섰으니 수도원을 짓고 사실 곳을 마련하며, 기구를 갖추어 드십시오." 수닷타는 집에 도착해서 생각했다. "마

격이었는데, 수닷타는 당장 수레에 황금 등전을 싣고 와서 제타 왕자의 현관 앞부터 깔기 시작했다. 현관 한쪽을 덮기에도 까마득하자 수닷타는 사람들을 재근 독촉했다. "가서, 등전을 더 싣고 오게!" 그 광경을 제타 왕자가 보았다. "이건 예사일이 아닌데... 어째서 저 많은 재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거지..." 사정을 듣고 난 제타 왕자는 깊이 감동했다. "황금을 내가 깔도록 해 주시오. 당신에게 이 땅을 주겠소." 이렇

齊集之時. 佛者是說法之主, 在者欲明處所. 舍衛國者波斯匿王所居之國. 祇者太子名也. 樹是祇陀太子所施, 故言祇樹. 給孤獨者須達長者之異名. 園本屬須達, 故言給孤獨園." 번역하면 이렇다. "(경문에) '일시(一時)'라고 한 것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때를 가리킨다. '불(佛)'은 설법의 주인을, 그리고 '재(在)'는 그 처소를 가리킨다. '사위국(舍衛國)'은 파사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기(祇)'는 그곳 태자의 이름이다. '수(樹)'는 기타(祇陀) 태자가 기부한 숲이라는 뜻에서 '기수(祇樹)'라고 했다. 급고독(給孤獨)은 수닷타(須達) 장자의 별칭이다. 수닷타 장자가 소유한 정원이기에 급고독원(給孤獨園)이라고 했다."

각설하고, 나는 <울장>의 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하나는 수닷타 장자의 영웅적 용기이고, 둘은 붓다의 유머 감각이다. 수닷타 장자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몇 번을 망설인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의 영광과 부를 버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줄 스승을 찾아 대면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는 주저한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이전의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것이다. 그때 야차 시바카가 조용히 속삭인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불성의 소리에 다름 아니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물러서지 마라!" 이 속삭임을 우리 모두 듣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하고 살거나, 업장이 두려워 아예 듣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나아가라 장자여, 물러서지 마라



음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면서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곳이 좋았다." 사방으로 부지를 탐색하며 다니다가 발견한 자리가 제타 왕자의 소유인 '기림의 숲'이었다. 제타 왕자는 코살라의 지배자 파사의 왕 프라자파티의 태자였다. 그는 숲을 팔 일이 없었다. 수닷타가 와서 하도 조르자 그는, "금화 10만개를 준다 해도 아니 팔겠소"라고 외쳤다. 안 팔겠다는 뜻에서 부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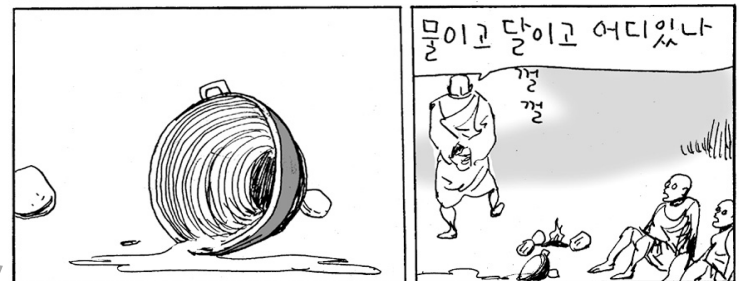
계 해서 기수급고독원, '제타 왕자의 숲'이었다. 고독한 자들의 후원자 수닷타 장자에게 양도된 그 정원 '예, 붓다의 오랜 거주지'이자 수련처인 기원정사가 만들어졌다. 육조 혜능의 부연 해설 혜능도 이 인연설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제 1장의 구결(口訣)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言一時者, 師資會遇

주장사파라...

84 흠산 스님의 '우물'



조태호



흠산 문수(歙山文遂, ?-?): 당(唐)대 스님. 복주 출신으로 동산양계(洞山良价)의 법을 이음. <벽안록> 제56쪽 흠산일록(歙山一錄) 공안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결망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나요?

스님들이 가방처럼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을 결망이라고 들었습니다. 결망이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결망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병맨)

답1: 일반적으로 운수업자들이 만행을 떠날 때 메는 '보통'을 결망이라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출가분해 벗어버리려는 무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결망을 걸머지고 간다는 말도 합니다.

즉 '결망'이란 스님들이 발우·목탁·경전이나 때로는 시주받은 공양물 등을 담아 등에 메고 다니는 일종의 배낭입니다. 결망이라는 단어가 '결'자로 시작했고 대개 스님들이 특별할 때 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결망을 걸칠 때 쓰는 말태기로 착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는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결망은 일종의 대형 주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무명천에 먹물을 들여 결망을 만들어 메고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구름처럼 다니는 스님들의 모습은 출가분한 생활의 표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유)

답2: 우리의 귀에 익은 말에 '괴나리붓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붓짐을 통틀어 '단 붓짐'이라고도 합니다. 괴나리 붓짐이란 결망이든 번거로운 이동장비를 피하고 언제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상태를 유지할 때 쓰는 정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망 하나에 생계를 의탁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스님들의 행적을 불교 전문용어로 '만행'이라고 합니다. 만행은 탁발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스님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만행을 합니다. (붓짐)

답3: 일요일이 되면 도시 근교의 산에는 온통 서양식 결망이 원색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망을 메고 갈대가 하얗게 핀 산모퉁이를 지나가는 스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한 번쯤은 결망에 발우를 담아 메고 출가분해 떠돌아다니는 여유와 한가로운 비록 상상으로나마 즐겨 볼만도 합니다. 결망을 메고 다니며 경험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늘 이 시대의 중생이 진실로 겪고 있는 아픔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합니다. (출가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in specific cells.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한 스승 또는 한 학교에서 같이 학문을 닦고 배움 2. 닭고기와 잉어를 한데 넣어 끓인 국 3. 노를 이용하여 젓는 배를 부리는 사람을 일컫음 4. 쓰러나무의 채로 넓적하게 썰어 얹어 끓여 만든 채그릇 5. 술밭에 나서식하는 벼싧으로 향기가 좋고 맛이 있어 식용 벼싧의 대표로 꼽힘 6. 지도상 지표면의 동일 해발고도 점을 연결한 선.

세로 1. 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통일약사여래불이 모셔져 있고 현재 제육수행대법회가 열리고 있음 7. 학습에 필요한 물품 8. 초나뭇잎에 누무뭍을 썰어 넣고 섞은 음식으로 목청포라고도 함 9.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방송 사업을 경영하되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시청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 기관 10. 입사 관선이 반사하여 처음의 매질 속을 향해 진행되는 광선 11. 염전에서 바닷물을 거르기 위해 땅바닥을 다지고 가장자리를 넓고 길게 둘러막은 시루 같은 장치.